

<사명선언문> "백운의 영성과 문화와 복지를 책임지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 백운향

2017년 교회표어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7년  
부름받은 제자!  
훈련받은 제자!  
가르치는 제자!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35호 2017년 2월 5일 발행 [월간]



## 마음의 겨울

매년 겨울이 되면 많은 겨울 축제가 열린다.

'화천 산천어 축제', '영월 동강 겨울축제', '홍천 쫄쫄 축제', 그런데 2017년 1월달 신문에는 이런 글자가 등장하고 있었다.

"포근한 날씨, 겨울축제 비상"

나도 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겨울 축제로 인하여 그 지역이 활성화 되었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

## "걱정도 팔자"

기 때문이었다.

결국 겨울 축제 종료기간이 다가왔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포기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한파가 닥치기 시작했다. 수은주는 급강하했고, 얼지 않던 강들은 쫄쫄 얼어붙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수하려 했던 겨울축제 행사장은 철수를 연기하고 활기 차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걱정도 팔자다."

만약 한파가 올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받을 동동 거렸을까? 비상이라고 하면서 염려했을까?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 다만 예측할 뿐이다. 예측대로 되면 좋아하고 신난다. 그러나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했고

불안해 한다.

똑똑한 사람은 예측대로 되는 확률이 많지만 그러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충격을 받고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베드로전서 5장7절)

초등학교 3학년 때 구리에서 서울로 전학을 했다. 구리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학교에 갔기 때문이

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부터는 엄마 없이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은 늘 걱정한다. 잘되도 걱정, 안되도 걱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

2017년 혹시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 아마 2017년도가 평안할 것이다.

## 백운면 이장협의회 회장 황성수

### 지역발전의 첨병역할을 다짐하며...



황성수

안녕하십니까.

백운면 이장협의회 회장 황성수입니다.

우리면은 2017년 1월 1일 현재 1,684세대 인구 3,317명(남 1,671명, 여 1,646명)의 22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백운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장이 편하면 주민이 불편해지고 이장이 불편하면 주민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우리지역 22개리 마을이장님과 함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 일선 행정

기관인 면사무소의 행정지원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의 각종단체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이 화합, 단결하여 발전하는데 첨병의 역할을 다하는 이장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백운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축복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 백운면 농업인단체협의회장 허진영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허진영

백운면 농업인과 백운교회 교인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운면 농업인단체협의회장 허진영입니다.

새로운 영농계획을 설계하며 올 한해도 우리의 가슴에 알찬 희망과 열정을 품고 농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농업경영을 바탕으로 수제농산물 가공과 체험농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농업체험관광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창조농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 농업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개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이 화합을 다지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농사소득 2배 증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충고 부탁 드리며 회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경청해 마음을 끌어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귀댁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면 새마을연합부녀회 회장 전경애

### 봉사의 사명과 보람으로 열심을...



전경애

안녕하세요.

백운면 새마을연합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전경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마을연합부녀회장직을 맡은 지 6년이 흐른 지금도 항상 어렵고 책임감이 앞섭니다.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의 점심봉사나 자장면봉사, 목욕봉사와 같은 자원봉사일 외에 재원조달을 위한 사랑의 텃밭가꾸기, 옥수수 심기등 고된 일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려운 노인들이나 지역을 돕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부녀회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어려운 점

심봉사나 목욕봉사를 진행하고 난 후의 뿌듯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희열이며 참 잘했다는 보람에 뭉클해 지기도 합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져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단체가 많아 힘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녀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격려로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교회  
<교회창립 1904년 1월5일>  
교회창립 113주년 기념촬영

(2017년 1월 1일 주일에배후 촬영)